



KOREA

# STORIES

## Lee Ufan

“예술은 예술가 혼자 모든 걸 고안해내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라는 엄청난 그 무엇과 소통하는 신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작곡가가 음악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그런 차이성 때문에.” 자연의 물성을 가져다 초월의 세계를 고요하게 이야기하는 아티스트 이우환이 파리의 아틀리에에서 건넨 한마디.

Photographed by Koo Dong Eun,  
September, 2012.

